



Kyo.Prot.N.50/2021

교토교구의 신자분들에게

2021 년 성모 승천 대축일 주교 메시지

교토교구의 신자 여러분, 코로나 감염자의 증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코로나의 수습을 기원하며 성모님께 우리의 기도를 바칩시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전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대유행 아래 놓여있는 저희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치료중인 사람들,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과 감염에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 등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염확대를 재빨리 멈추어주소서.

■ 라이문도 다나카 켄이치 주교를 위해

다나카 주교님은 7 월 29 일 우와지마의 병원에서 조용히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다나카 주교님은 8 월 31 일에 94 세 생일을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또한 금년 12 월 21 일로 사제 서품 70 년이기도 합니다. 주교로서 삶을 봉헌한 다나카 주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부디 다나카 주교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조부모와 노인, 병자를 위해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 성 요아킴과 성 안나의 축일(7 월 26 일)을 맞아 조부모와 노인의 존재 가치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7 월 25 일(일)을 첫 번째 조부모와 노인을 위한 세계 기념일로 정해 모든 조부모와 노인들에게 박수를 치자고 제의했습니다. 특히 모든 고독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는 예수님의 약속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병자와 노인의 병문안을 삼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 서로의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태풍 호우 재해 이재민들이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위로이신 마리아님, 괴로워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안아주소시오.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손길을 뻗쳐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대유행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2021 년 8 월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

✠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